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초대합니다

한국 총동문회 모임

- 일시: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4:30
- 장소: 인천계산중앙교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82 (작전2동 410-1)

회 장 : 곽주환목사
총 무 : 최신성목사
부총무 : 김두영목사
서 기 : 박동식목사

초대의 글



클레어몬트 한인 동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새롭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공통된 경험과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꿈꿔왔던 우리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클레어몬트 한인동문총회를 오후 4시 30분,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에는 부총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경식 박사님과 부학장으로 부임하신 김남중 박사님이 참가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춧돌이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동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꼭 오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동문회 회장 곽주환목사 드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국 내 협력 강화 및 후원 확대를 위한 방문



(지난 방문 당시, 한국 내 협력 및 지원 확대를 위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소개하는 모습)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의 국제협력 이경식 부총장과 김남중 부학장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학교, 교단, 교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원금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 총동문회 참석을 포함하여, 한국 내 주요 신학 교육기관 및 교회를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 부총장과 김 부학장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서울)를 방문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서 총장, 학장 및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며 채플 설교, 특강, 입학 설명회 및 유학 상담을 진행하며, 한국 내에서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라매열린교회, 정동제일교회, 목원대학교, 한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한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주최의 유학 상담 세미나에도 참석해 CST의 입학 정보와 유학 기회를 알리는 세미나를 제공한다.

특히, 10월 21일(월) 오후 4시 30분 인천 계산 중앙교회(최신성 담임 목사)에서 개최되는 클레어몬트 한국 총동문회(회장 곽주환 목사)에 참석하여,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과 감사패를 증정하고, 동문들의 기대와 요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CST와 동문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문들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경식 부총장은 한국 총 동문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CST의 발전을 위해 한국 총 동문회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해외협력 담당 부총장 직을 맡게 되었고, 학교 발전을 구상하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동문들과 가까워지고, 동문들의 필요와 요구를 귀담아듣고, 또한 KMC 관련된 dynamics도 잘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신 동문들의 활동을 또한 학교에 잘 알리고, 좋은 소식들을 학교 차원에서 경축하는 것도 제가 할 책무라 생각합니다.”

CST의 한인 국제협력 부총장 및 부학장 임명은 한국 총동문회와 다양한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이번 방문을 통해 CST는 동문 및 한국 내 기관, 교단, 교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장학금과 후원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한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경식 부총장과 김남중 부학장이 이끄는 이번 한국 방문이 CST와 한국 내 동문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연락처:

이경식 부총장 slee@cst.edu / 한국 휴대폰 번호 010-9934-0632

김남중 부학장 njkim@cst.edu / 한국 휴대폰 번호 010-5933-3278

2024년 가을 인텐시브 위크(Intensive Week) 수업



(학생들이 집중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024년 가을 인텐시브 위크 수업이 9월 23일[월]부터 27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새로 이전한 Westwood 캠퍼스에서 5일간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캠퍼스에서 직접 수업에 참여하며 Zoom으로 만났던 교수와 동료 학생들을 만나, 수업 시간 외, 식사를 나누며 친교를 하였다.

인텐시브 위크는 기존의 줌 수업에서 부족했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를 보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유학생들은 인텐시브 위크 수업을 통해 비자 요건 중 하나인 대면 수업을 충족하게 된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나뉘어 각각 3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5일 동안의 오전·오후반 수업을 진행했던 이전 학기와 달리, 이번에는 3일간 더 긴 시간으로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 새로운 방식은 학생의 숙박비를 줄이고 교통 이동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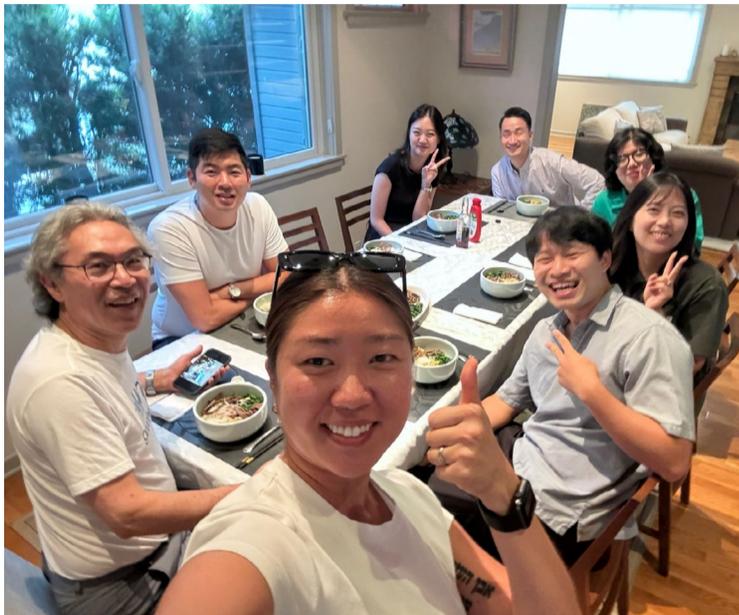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긴 점심시간을 갖었는데, 식사 후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갖을 수 있었다. CST는 근교 연합감리교회의 후원을 받아 점심 식사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소속감과 연대를 경험할 수 있는 commune의 시간이었다. 식사 교제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가고,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했다.

CST는 많은 신학교 중에서 online education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으며 인텐시브 위크를 함께 실행하여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CST가 중요히 여기는 Justice와 Compassion 외, Belongingness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함께 점심을 나누며 교류하는 소중한 순간)

이경식 부총장 자택에서 열린 따뜻한 만남: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재학생·신입생 개강 모임



(한인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9월 8일 주일 저녁 6시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한인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2024년 가을학기 개강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이경식 부총장(6국제협력)의 자택에서 열렸으며 LA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 중 8명이 참석하였는데, 학생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주일 사역을 마친 후, 이경식 부총장 자택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오븐에 정성스럽게 구워 낸 치킨을 에피타이저로 즐긴 뒤, 이경식 부총장의 사모님께서 정성껏 마련하신 불고기 비빔밥으로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학업과 자취 중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비빔밥 같은 정통 한식을 맛보며 사모님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식사 후, 학생들은 디저트를 즐기며 자유로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교회 사역과 학교생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이경식 부총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학교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높은 만족감을 표했으며, 특히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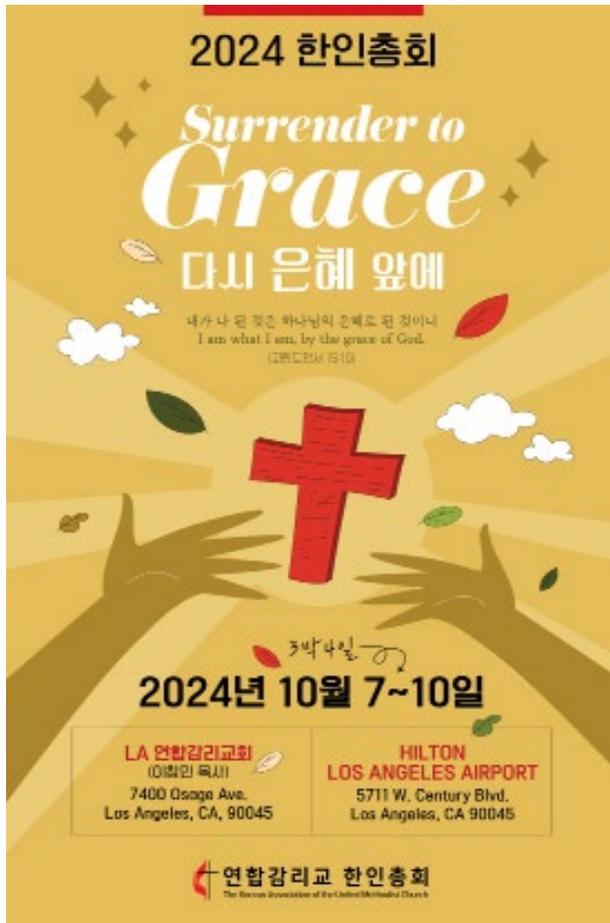
이경식 부총장은 CST 학교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준비해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특히 신입생에게는 환영의 의미로 다양한 학교 기념품이 함께 제공되어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종강 시에도 다시 모여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했다.

이번 개강 모임은 LA 인근에 거주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학생들 간의 유대를 한층 깊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이 대면과 비대면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계속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디저트로 만든 달콤한 나눔의 순간)

2024년 한인 연합감리교 총회, “다시 은혜 앞에(Surrender to Grace)”



2024년 한인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LA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한인 교회와 한인 사역자들이 모여 공동체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모임이다. 최근 일부 교회의 교단 탈퇴로 280여 개의 UMC 한인 교회가 230여 개로 축소되었지만, 이번 총회는 UMC의 모든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향과 정체성을 모색하며 미래의 성장을 위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다시 은혜 앞에 (Surrender to Grace)”로, 연합감리교회의 기본과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날에는 “Grace upon Calling”을 주제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첫 자리를 기억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둘째 날에는 “Grace upon Ministry”를 주제로 교단 탈퇴라는 아픈 과정을 겪는 중에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 셋째 날에는 “Grace upon Mission”을 주제로 한인총회와 세계선교부(GBGM)와의 ‘선교협약(Mission Covenant)’을 맺는 순서가 포함된다. 이 협약은 지난 4월 교단 총회 기간 중 한인총회 임원회가 세계선교부 소속 장기 선교사 140명에게 향후 3년간 재정과 기도, 동역으로 후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재확증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UMC의 다양한 기관과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여러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 그중 하나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김찬희 박사님이 인도하는 ‘회의 진행법’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번 총회는 한인 UMC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신앙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한인 장학금 기금(Korean Endowment Fund)를 소개합니다.

이번 달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를 통해 한인 장학금 기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이번 첫 번째 장학금은 고 김광우 목사 & 김양희 사모 기념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고 김광우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과 기여를 기념하며, 신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세기 목회자 기독교대한감리교단 지도자

김광우 목사 (1906-1990)

김광우 목사는 황해바다 덕적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8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연수하고, 1937년 서울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감리교회에서 4년간 시무하였으며, 금강산 연회 준회원으로 임회했다. 김광우 목사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서울 북지방 원동감리교회에서 목회하였고, 1948년 인천 지방 감리사를 역임했다. 이후 기독교대한감리교 총리원에서 교육국, 전도국, 사회국 총무를 8년간 역임한 후, 서울북지방 감리사와 자교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했다. 1963년부터 1972년까지는 서울 남지방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1967년부터 1968년까지는 서울 마포지방 한강 중앙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김광우 목사는 197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980년에 우드랜드힐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김광우 목사는 1990년 2월 17일에 소천하였다.

김광우 목사의 봉사 생활은 매우 활발하였다.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연세대학 재단이사과 배재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이화학원 이사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및 대전 신학대학 이사를 맡았다. 기독교 세계봉사회 부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이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협의회 위원, 유지 재단 이사와 공주 영명 학교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N.C.C. 부회장과 N.C.C.K. 회장을 지냈다. 김광우 목사는 또한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이사를 역임하였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선교를 개척하고, 삼일 학원 이사장과 이대 국제 재단이사로서 교육과 선교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광우 목사는 “나의 목회 반세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남겼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준-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 기준): **\$172,000**

- KEF 잔액(1990.03. - 2024.06.):	\$2,371,654
- KLS 잔액(2018.10. - 2024.06.):	\$629,770
- General Fund 합계(2024.03. - 2024.08.):	\$10,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방법 안내

* 수표: 수표는 받는 사람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로 쓰고 학교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장학금이 아닌 경우 메모란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이라고 명시해주세요.

* 온라인: 온라인 기부 링크는 <http://cst.edu/give/donate/>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금선택” 아래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항목이 있습니다.

(한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이외에 학교를 위한 기부를 원하시면 “기금선택”에 “Generall Fund”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계좌 이체(EFT)를 원하시거나 증권 기증을 원하시면 slee@cst.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4 4th Healing Camp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

'보이지 않는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모님,
그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엘피스 패밀리가 힐링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강사: 변명혜 교수 (Professor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일정: 10/28(월) - 29(화) | **대상:** 목회자의 아내 | **회비:** \$50

장소: Mater Dolorosa Passionist Retreat Center
700 North Sunnyside Ave, Sierra Madre, CA 91024

예약 및 문의: Elpis Family 대표 박운송 목사 213-700-9928

협찬: CBS 기독교 방송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찬양 인도 사역자를 구합니다.**

주일 2부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실
사역자를 구하며
사례는 \$700 - \$1,000입니다.

문의: 김호영 목사 (808) 230-0266
hoyoungkimus@yahoo.com